

전남 농가에 340억 더 받고 농지 되 판 농어촌공사

5년간 환매차익 1699억원...전남 341억원 9개 도 가운데 최고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4% 높은 이자율...임대료·이자율 낮춰야

경영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판 전남 농가들이 최근 5년 동안 340억원을 더 주고 땅을 되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이 기간 동안 거둔 환매 차익은 1699억원에 달했는데, 전남은 5분의 1을 비중을 차지하며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 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공사가 거둬들인 환매 차익은 1698억 원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지를 팔았던 농가들이 공사로부터 도로 땅을

사들이면서 1699억원 가량을 더 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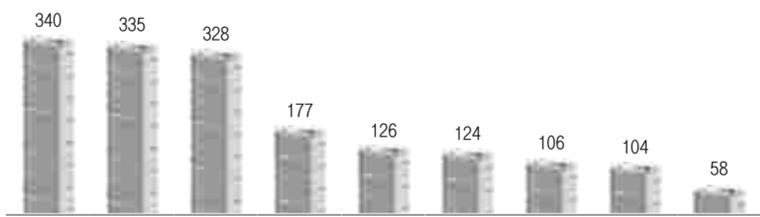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5년 동안 농지를 매각한 농가의 89%가 환매를 했다.

공사의 환매 차익은 2016년 153억원에서 지난해 395억원으로 2.6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8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9개 도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환매 차익은 전남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 시도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환매 차액



전남 농가들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220억7400만원에 농지를 팔았지만, 되살 때는 340억 7500만원(15.3% ↑) 비싼 2561억4900만원에 매입했다.

전남에 이어 환매차익은 전북(335억원), 경북(328억원), 경남(177억원), 강원(126억원), 충남(124억원), 경기(106억원), 충북(104억원), 제주

(58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민들이 이처럼 높은 차액을 주고 환매해야 하는 건 시중금리보다 높은 임대료·이자율 때문이다.

농민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통해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지의 환매권은 농민에게 보장된다.

농민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를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환매 차액과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에 귀속된다.

이개호 의원은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부담은 지역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농업경영 회생자금(1%) 등 다른 농업부문의 정책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가들의 고흥률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료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나선다

내부규정 26건 정비

한국농어촌공사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규정 26건을 정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사는 '규제인증책임제'를 규제인증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제도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홈페이지에는 '규제 개선제안방'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 확대가 있다.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 임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ha),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ha) 등으로 확대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간 12~14%에서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농지은행포털에서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농지은행 관련 온라인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에서 7종(토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득금액증명서·국세·지방세납납증명서)으로 확대해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줄였다.

한편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5일 몽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무안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무안 양파 240t 대만 첫 수출 높은 수출가에 농가 소득 기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몽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무안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했다. 총 3차레에 걸쳐 무안 양파 240t(20kg들이 1만 2000방) 물량이 수출된다.

선적식에는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김산 무안군수, 정모 농협 무안군지부장, 최용주 몽탄농협 조합장, 대행업체 H&P인터내셔널(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파는 내수 판매보다 수출 가격이 높아 무안 양파 재배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몽탄농협은 수출업체와 상시로 추가 물량을 협의에 꾸준하게 양파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인건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재배 농가에 수출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온라인 수요 급증에도 친환경 농가 판로지원 '뚝' aT, 지원 농가 2019년 34명서 올해 9명으로 급감

친환경 농가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선정 농가는 지난 2019년 34명에서 지난해 2명, 올해 9명으로 급감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선정 농가는 2019년 72명, 2020년 57명, 올해 3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투입된 예산은 2019년 2억원, 2020년 2억원, 올해 1억6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전남 선정 농가도 지난해 2명·올해 9명으로, 2년 전 규모(34명)에 턱없이 못 미쳤다.

aT는 매년 친환경 농가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59명의 친환경 농가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는 신청자 90명 가운데 '3분의 1'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aT는 올해 신규 대상 농가를 줄인 대신 기존 수혜 농가에 추가 온라인 교육과 구매 상담 등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애초 지원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온라인 유통 규모는 6조 213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년(3조7230억원)보다 66.9%(2조 4901억원)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

휘발유 값 3주 연속 상승... l 당 1700원 돌파

광주 1705.32원·전남 1708.99원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주말 l 당 1700원대에 진입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l 당 광주 1705.32원·전남 1708.99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2.67원, 3.57원 상승했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 16일부터 l 당 1700원을 넘겼다.

지난 8월 들어 주춤하던 기름 값 상승은 지난달부터 반등하며 3주 연속 오름 추세다.

이날 경유 가격도 광주 1504.16원·전남 1506.24원으로, 전남보다 1500원대에 접어들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상대적으로 싼값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은 지역에서 41건 들어왔지만, 실제 승인을 받은 사례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9월 말) 광주·전남에서는 41개 주유소가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했지만 46.3%에 불과한 19개만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고유가 영향을 받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각 6곳이 알뜰주유소 신청을 했지만 두 지역 모두 절반만 승인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기름 값이 l 당 40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의원은 "매년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은 늘고 있지만 전체 주유소 대비 알뜰주유소의 비중을 약 10%로 유지하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